

△ 2001년도 표어 △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자

순복음 Life

제3호

발행일 2001년 1월 7일

발행인 : 한승권

위원장 : 김미진

편집처 : 문서발간위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중앙교회 ☎ 343-80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62-1

<http://www.djfgcc.pe.kr>

✉ hagape@netsgo.com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겸용)

<1월의 기도>

새 날입니다

사모 이 영 주

주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날의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할 새 날입니다.

이 날에는 모든 이들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부족으로 인한 걱정

풀려지지 않는 인생

그리고 또 찾아오는 어려움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 소망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환히 웃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호흡하는 우리 모두는

새 날을 맞아

주님의 은혜로 넘치리라 믿습니다.

말씀과 십자가 붙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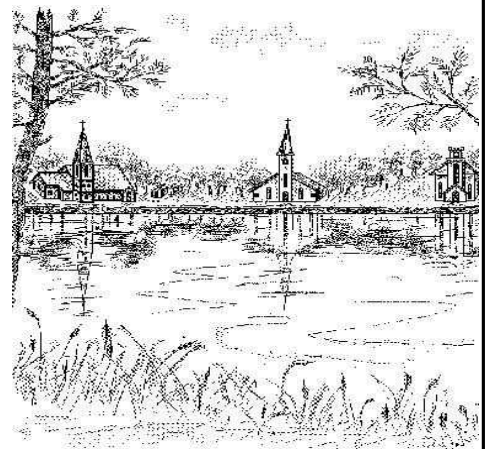
오직 한 길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이 길이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렵니다.

새 날에는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하던 한 해가 지나가고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새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해는 주의 복이 무엇인지 확인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느 가정 하나 쓰러지지 않았고, 때론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났어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우리는 새 날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보여준 꿈을 버리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묵묵히 길을 걸어간 것 같이 우리들도 마음에 빈틈없이 새겨주신 꿈을 소망하며 걸어야 합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왔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점에서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지나간 해의 역사가 아니라 찾아 온 시대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꿈꿀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어려움에서도 확연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믿음의 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느낍니다.

2001년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주제로 갖고 그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자』입니다. 이 삶은 우리들의 전제적인 것이며 이 땅에서의 전부입니다. 지난 세월에서 다져진 신앙과 과정은 이제 제자로서의 흔적(Στιγμα, 스티그마)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새로운 디딤돌을 구축하고 사역의 마당을 넓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과 부여된 달란트를 펼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균형이룬 교회」가 되자 했는데, 하나님은 소망과 기도대로 채워주셨습니다. 존립하지 못했던 청년회가 창립되었고, 문서복음화의 첫발로 「순복음Life」 신앙지가 발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예배가 찬양선교단의 창단으로 활기를 얻었고, 신앙서적 읽기가 정착되었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의 양질을 높이고, 신앙과 인격 그리고 생활의 일체성을 이루어 가는 제자가 되기 위한 거룩성의 모습을 가지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과 힘들어하는 지역교회와 복음의 불모지 국가에 대한 선교지원을 정성껏 하는 교회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좀더 강화하여 전도사역과 성도생활을 돌보는 사역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형제애를 갖고 느끼고 행하는 초대교회의 전형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행복함이 소문난 교회, 누구나 출석하고 싶은 교회로 당진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애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순수성과 절대성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있어 죄악을 몰아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참 아름다움이 있어 이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목사는 2001년을 새 도약의 해로 보겠습니다. 반드시 이루도록 힘쓰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동역자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땀을 내며 눈물을 흘리며 웃음으로 씻어내는 삶이 됩시다.

종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온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로 축원합니다.

◆ 첫 번째 이야기 : 젖먹이 때부터 책 읽어줘라.

몇 살 때부터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 좋을까?

정답은 젖먹이 시절부터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책읽기에 관한 한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첫 돌이 안된 아기에게 어떻게 책을 읽어줘야 할 지 모르는 초보주부들은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다.

미국 육아잡지 '페어런츠'는 아기가 책을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요령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줄거리를 무시하라

책의 내용과 관계없이 주로 그림에 대해 말해준다. “여기 봐, 네 것이랑 똑같은 색깔의 공이 있네” 라는 식으로 얘기해 준다.

2. 동작과 정황을 곁들인다

말이 걷는 장면이 나오면 아기를 부드럽게 흔들 어준다. 쥐가 시계를 타고 오르는 장면이 나오면 손가락으로 아기의 팔을 어루만져 준다.

3. 엄마가 좋아하는 책을 고른다

엄마 자신이 책을 읽어주며 재미를 느껴야 한다. 엄마가 신나지 않으면 듣는 아이도 시큰둥해진다.

4. 앨범으로 책을 만들어 준다

작은 앨범에 가족 사진이나 잡지에서 오린 아기 사진 등을 끼워 넣은 '특별한 책'을 만들어 보여준다.

<다음 호에 계속>

생활상식

1. 카펫 세탁후 가구 놓을 때 쿠킹호일 깔면 자국 안 생겨.

세탁하려면 큰마음을 먹어야 하는 카펫. 그러나 세탁을 한 뒤에도 골칫거리가 남는다. 젖은 카펫에 가구를 놓으면 털이 누우면서 자국이 남는다. 그렇다고 카펫이 마를 때까지 가구를 한쪽에 몰아놓을 수도 없다. 이때 알루미늄 쿠킹호일을 카펫 위에 놓고 그 위에 가구를 놓으면 카펫 습기가 호일 밑으로 빠져나가 자국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2. Y셔츠 박음눈 3cm에 22개는 있어야 '튼튼'

다른 옷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와이셔츠의 경우 박음질이 잘못되면 터지기가 쉽다. 적어도 박음눈이 3cm안에 22개 이상 들어있는 것을 골라야 한다. 박음눈이 이보다 적으면 터지기 쉬울 뿐 아니라 세탁하고 나면 주름이 잡힐 수 있다.

3.세탁기 안쪽 묶은 때는 식초 풀어 닦아.

세탁기 안쪽이 더러워질 경우엔 물을 가득 채우고 식초를 한 컵 붓고 회전하면 웬만한 때는 물에 녹는다. 이래도 안될 경우에는 스펀지에 주방용 세제를 문혀 닦아낸다. 바깥쪽의 때도 지우고 싶을 때는 세탁조에 물을 가득 넣고 주방세제를 잘 섞어 하룻밤 놓아둔다. 다음날 10~20분 세탁기를 돌려서 세제액을 씻어 내고 물만 가득 채워 다시 세탁기를 행거준다.

4.스타킹 을 풀림 더운물에 식초 다 행구면 해결.

스타킹의 올 풀림을 막으려면 스타킹을 세탁한 후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린 후 더운물에 행거 널면 된다. 이렇게 하면 올이 풀리는 것을 예방함은 물론 땀 냄새가 배어들지 않아 일거양득이다.

알뜰살뜰 “아나바다”

◎ 물품1 : 휠체어(구입년도 2000년, 상태 A급, 가격 10000원)

* 제공자 : 류정훈 성도님

◎ 물품2 : 여아 운동화(195mm, 색상은 곤색과 빨강이 혼합됨, 모양은 허선영 자매님의 맘보 신발 스타일, 가격 1500원). * 제공자 : 김미진 집사님

◎ 물품3 : 어린이 실내화 2걸레(175mm, 180mm, 흰색. 가격 200원씩). 여아 털 실내화 (미키마우스의 미니실내화 185mm. 색상은 검정색 바탕에 분홍색 미니 그림. 가격 1500원)

* 제공자 : 이영주 성도님

☎ 연락 전화 353-4515(김미진) 353-3516(이종희)

생명의 양식

제목 : 성숙한 성도의 신앙

성경 : 빌 2:12~18

「올 한해 성도님의 신앙이 성장되었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도의 가정에서 출발한 교회며, 성도의 신앙적 힘, 즉 헌신과 봉사로 부흥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뛰어났으며 훌륭한 일꾼들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에는 부족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흔들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성숙이란, 믿음, 인격, 생활을 일치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노력합니다. 성장합니다. 날마다 변화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랄만 한 하며, 축복할 만 하며, 일꾼으로 세우실 만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성숙한 성도의 신앙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면 은혜받도록 하겠습니다.

1.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구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거듭남은 단회적이지만 생활의 거듭남을 계속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가만 두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 홀로 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예배해야 합니다.

***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적 방법으로 고집해서는 안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 사울왕의 불순종 -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 경외하다(올라 베오마이). 나로 인해 죄악이 생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거수 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음을 알고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합니다..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신앙이 식어지고 약해질 때 나타나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 원망은 멸망의 시작이며, 은혜의 단절입니다** -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불뱀을 만나게 되었음(고전 10:10).

불평은 상황에 대한 것이고, 원망은 상대방을 향한 것인데, 주께서는 이를 가증히 여기시며 심판하십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염려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회상한데서 온 것입니다.

시비는 헬라어로 '디알로기스모스'란 단어인데, 뜻에는 계산, 악한 생각, 속고, 속고나 생각보다는 나쁜 '결정', 토의, 토론, 회의, 사법적인 '조사와 판결'인데, 본문에서는 의심으로 해석합니다.

*** 의심은 죄를 발생시킵니다.** 의심은 불신의 모습으로 하나님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심은 모든 죄악의 시작입니다.

*** 원망과 의심은 부족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바르게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원망과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죄악된 장소에 가지 말고, 행악자와 함께 어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 누구든지 원망과 의심을 가져서도 아니되며, 하도록 원인을 제공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3. 범사에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는 것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 세상 안에서 즐기는 것으로 기뻐해서는 안됩니다.

*** 성도들과 기뻐해야 합니다** - 자신의 기쁨을 성도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 목사와 기쁨을 함께 해야 합니다** - 목사의 기쁨에 동참하시고, 자신의 기쁨에 목사를 초청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목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목사는 여러분의 예배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세상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육적이거나 세상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한 해에 주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헛되지 않고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로써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서적을 읽고서

제목 : 러브 버스터

저자 : 윌라드 F. 할리J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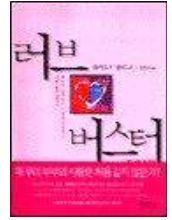
사람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들면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애 시절처럼 결혼 후에도 낭만적인 생활이 지속될 줄로 착각하고 있다, 사실은 결혼 후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상대방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챙기면서 낭만적 사랑은 사라지고 만다, 이럴 때 많은 부부들이 이혼이라는 아픔을 감당해야만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 책은 지속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러브 버스터"란 배우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반복적 행동이고 우리는 이 러브 버스터를 쓰러뜨리고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잠시 "사랑 은행"을 소개하려 한다,

사랑 은행이란 배우자로부터 좋은 느낌일 때 사랑이 입금되고 반대의 느낌을 받을 때는 사랑이 인출된다, 여러 쌍의 위기에 처한 부부들의 상담내용을 보니 결국 이 사랑 은행에서 입금보다는 지출을 많이 한 결과였다, 그 내용은 분노폭발,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 거슬리는 행동, 이기적 요구, 부정적이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사항에 주목하고 나 자신이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연애시절의 낭만적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러브 버스터를 퇴치하여 사랑 은행에 지출을 막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사랑을 쌓아 입금하며 낭만적 사랑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

<글 : 김미진 집사>



성경과학

— 별자리 묘성 —

묘성은 황소자리에 있는 것으로 흔히 일곱 자매라고 부르는 개방 성단이다.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키마(kimah)』라고 하는데, 문자상으로는 "집적물" 또는 "더미"라는 뜻이 있다. 이 말은 성단(星團)이란 말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진으로 보면 이 성단에서 확인되는 별이 적어도 200개는 된다. 『라로우세 천문학 백과사전(Larousse Encyclopedia of Astronomy)』에 의하면 이 성단에는 전체적으로 500개 혹은 그 이상의 별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별들은 너무 희미하여 사진으로 찍을 수 없고 어떤 별들은 사진에 나타나는 별 뒤에 있어서 확인할 수 없다. 이 성단의 이름 『플라이 어디즈(pleades)』는 7을 뜻하는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일곱 개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욥기 38장31절의 "네가 묘성을 매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는 말씀이 일곱 개의 별로 이루어진 묘성의 몇몇 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먼지 구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 구름에 대해서는 묘성의 별들이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우주 공간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성단 내에 묶여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한 것 같다.

최근에 와서야 사진 건판이 나와서 묘성을 이루고 있는 별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다른 별들과 구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망원경도 발명되기 오래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묘성을 이루는 성단이 그룹으로 한데 모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묘성을 매어 떨기로 만들 수 있느냐고 물으셨다. 이 말씀은 별을 사진 건판으로 찍게된 후에 비로소 알게된 고도의 과학적인 개념이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으며,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언약의 상속인으로 택함받은 자이다. 그의 이름 <אַבְרָהָם> :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원래 ‘큰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본명이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과의 계약의 갱신 때에 하나님에 의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된 것이다 (참조, 창 17:5).

1. 시대와 성장 배경

아브라함은 그 당시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며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아버지인 데라와 형제지간인 나홀과 하란과 함께 생활하던 중 사래와 결혼하였다. 이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는데 아브라함의 동생이자 롯의 아버지인 하란이 죽자, 데라는 자신의 식구를 이끌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해 온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자 이때 75세가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최초의 히브리인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된 것이다.

2. 아브라함의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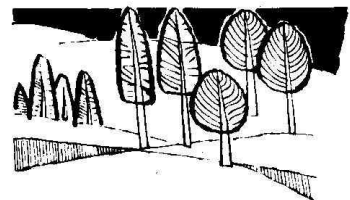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창 12:2) “라는 언약을 함께 받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 벨엘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가나안에 기근이 임하자 가서는 안 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을 행하다가 큰 수치를 당하였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 경건한 삶을 회복하였다. 그 후 아브라함은 다시금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확증 받았으나 이 언약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 현재 아랍인들의 조상이 된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사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시며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제정하셨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의 출생을 예고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25년만의 언약이 성취되어 이삭을 낳게 되었지만, 훗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믿음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 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물려주고 175세의 일기로 아내 사라가 매장되어 있는 막벨라 굴에 매장되게 되었다.

3. 아브라함의 성품과 신앙

아브라함은 가서는 안 될 애굽에 내려가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인이 무서워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과 잘못 등을 범하기도 하였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토록 소중히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바치는 절대적인 순종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또한 조카 롯에게 거처할 장소에 대한 선택권을 양보한 관대한 사람이었으며,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물질에 대한 청빈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은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바라보며 무조건적인 순종과 변함없는 믿음의 절개를 지킨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후손들에게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다.



-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최 종천 목사

한 달포 전에 동해안 부근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몸도 쉬고 의식도 전환하기 위한, 말하자면 휴양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니 도로변에 바다가 정면으로 내려다보이도록 배치해 놓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숙소로 정하고 의자를 바다쪽이 보이도록 거실 문을 향해 돌려놓았습니다. 며칠 거하는 동안 낮에는 푸른 바다가 밤에는 어두움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졸리면 의자에 기대채로 자다 눈이 뜨이면 또다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글들이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라든가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들 말입니다. 아침이 되면 조그마한 배들이 그들의 삶을 위해 어디론가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사람의 생계와 아이들의 학비라는 짐이 얹혀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부지런히 삶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올 수 있는 곳이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삶의 시름이란 저녁이면 드리우는 어둠처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오는 것이며 가는 것이니 감래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몸부림 쳐보아도 벗어지지 않으며.....

둘째날 아침엔가 눈에 띄는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먼 시각이라 얼굴이 어쩐지 나이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누구인가가 분명했습니다. 제가 내려다보고 있는 창가 바로 앞 부분에 얇은 물에서 무엇인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우 찬 물일텐데.....

긴 장화나 신었는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이며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채취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로변에 높은 벽을 쌓고 인접해 있는 곳이라 별로 얻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저 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분이 오늘 아침에 마음 흉측히 무엇을 구했으면 좋겠다”

따뜻한 실내에서 추위 속에 애쓰는 분을 마치 한 폭의 정물화인 양 감상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책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으로 균형을 잡기로 했습니다. 삶의 시간이란 언젠가 그 위치를 바꾸어 서로가 반대일 경우를 연출하기도 하고, 또 안됐다라는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씩씩하다는 건강으로 바라보니 미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라는 인간은 왜 늘 이렇게 복잡한 논리 구조를 통과해야 사는 건지.....

붉은 기 벗어나 온전히 밝은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바로 눈 아래 해안가. 제게는 비록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얇은 물가에 불과했지만 분명 오늘 아침 상에 오를 무엇인가가 준비했을 것입니다. 굵은 사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둥근 원형으로 보여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한 바다. 그 맞닿은 마음은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집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물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을 것입니다.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안음도 있고 웅크림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분명히 나간 배가 다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눈에 별로 띄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나 조금밖에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까지의 길이는 불과 한 뼘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제 눈에는 슬픔밖에 안보여도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길이 없어 보이는 이가 있지만 길은 있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제가 들려주고 싶은 것이 세상천지에는 가득하지요? 다만 못 볼뿐이지요? 이제는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할렐루야

늘 내 속에 거하시며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5-6세 정도에 엄마를 따라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의 모습들에 호감이 갖고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은 시작된 듯 합니다.

유,초등부를 졸업하고 중등부 때의 일입니다. 흔히들 사춘기 때라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며, 반항기가 다소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 내가 다니던 교회에 여전도사님 한 분이 부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조금은 특이한 분이셨습니다. 내 눈에는 그 분의 모습이 참으로 못마땅했습니다. 사춘기 때의 특징이라고나 할까. 나의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반항하며 거부하던 시기에 부임해 오신 전도사님 앞에서 난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웬지 싫었고 못마땅했습니다.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닌 나는 친구들 중에서 교회의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기에 학생부 회장을 맡았고, 싫으면서도 전도사님과 늘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회를 가지면서 전도사님과 벽은 무너지고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나의 성격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사나운 야수와 같았던 내가 여린 순한 양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껏 살아 왔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 하셨을텐데 나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그만 주님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쾌락, 유희가 나를 성령체험 전보다 더욱 더 죄악 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죄악 속에 머무는 때에도 주님은 마음 한 쪽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힘들고 커다란 문제 앞에 직면 할 때면 언제나 나의 손을 들어 주셨고 삶 속에서 역사 하셨습니다.

22살 어느 날 직장 생활을 하던 나는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 등장한 남편은 정말 싫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싸움을 위한 만남인 듯 얼굴만 대했다 하면 늘 싸

웠습니다.

남들은 우리가 한 달도 못 살고 헤어질 거라며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싸우면 정든다 하였던가! 우린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순탄하게 살아온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젖어 살던 우리 부부는 육적인 삶을 정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나지만 남편의 골수 깊이 베어 있는 세상문화로 인해 나의 마음은 또 다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에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남편은 구속되었고 나의 마음은 갈릴 길에 놓였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가 내려 오셨고 그 와중에도 주일을 지키시려던 어머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순복음중앙교회입니다. 나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했고, 소망이 생긋게 하며,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던 교회.....

마침 어머니가 성도들에게 집을 가르쳐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그 분들의 권유로 교회를 찾았지만 도우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 있으면서 임신 사실을 알고 어찌 해야 하는지 갈등하고 있을 때 오빠의 단호한 말썰이 나를 붙잡아주었습니다. "너에게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야. 혹여 다른 마음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을 접거라"하고. 그때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합의를 위해 난 동분서주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도 열정도 다시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묘하심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수감중인 남편에게 매일같이 서너장의 편지를 하며 믿음과 사랑을 키우며 신앙의 자리를 굳게 자리잡아 갔습니다. 보내준 성경책을 보며 그는 변화되어갔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세상문화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중에 나의 세상적인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차츰 변화되어 갔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애썼고, 태중의 아기를 위해 마음에 준비와 결단을 했습니다. 6개월형을 살고 나온 남편이 왜 그리도 사랑스럽던지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남편의 심령을 변화시켰던 것에서 온 것임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런데 그에 영혼은 사랑하지만 죄까지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즉 그에 죄는 용서하셨지만 죄 샀은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었고 걸어가는 엉덩이만 봐도 예쁜딸 '예뵤'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부터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나의 단점들, 부족한 사랑을 믿음의 헌신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종으로, 참된 일꾼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위에 나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 것입니다.

뉴에이지

뉴에이지 운동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일어났을까? 사실 뉴에이지 운동의 시작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뉴에이지 운동은 공식적인 중심 단체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펼쳐나가는 단체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뉴에이지(New Age, 새시대)란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대의 문명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통해 새시대를 건설하자는 사상지향적인 각종 운동을 통칭하여 부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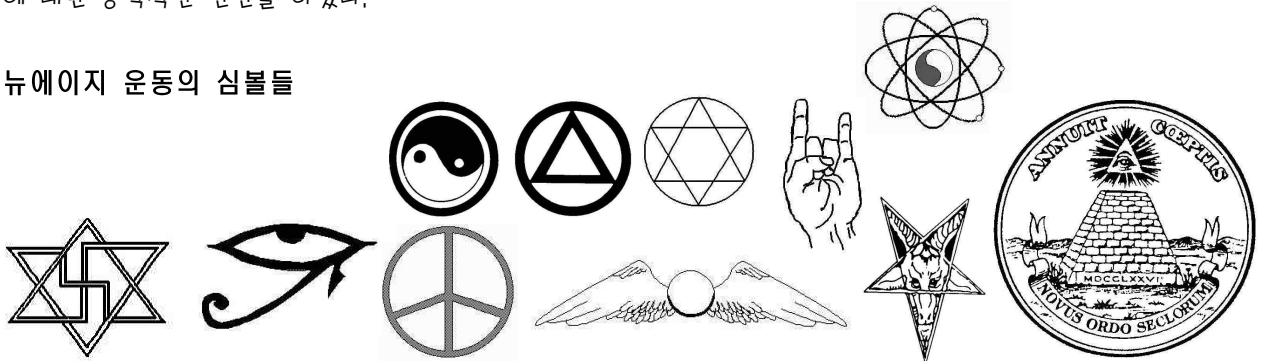
굳이 뉴에이지 운동의 시작을 따지자면 1875년 뉴욕에서 러시아 출신의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트스키(Helena Petrovna Blavatsky)에 의해 창설된 신지학 협회(Theosophy)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지학 협회의 창립자 블라바트스키는 1831년 3월, 러시아의 한가(Han家)라는 귀족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힘을 발휘하였던 그녀는 1875년 뉴욕에서 신지학 협회를 설립하고 「신지식의 열쇠」(The Key to Theosophy), 「비밀 교리」(The Secret Doctrine) 등의 저작을 남겼으며, 19세기 후반의 구미, 인도, 동남아 등의 사상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자신의 수호영이라고 말한 "마하-도마M" (고급의 혼)의 수호를 받아서 넓고 깊은 지식을 쌓았다고 고백하였다.

이후에 3대 회장인 영국 출신의 엘리스 베일리(Alice A. Bailey)에 의해 뉴에이지 운동의 실질적인 기초가 닦아졌고, 4대 회장인 스리랑카 출신의 즈나라 자사(Jnara Jasa)를 비롯한 역대 지도자들이 각종 강연과 저서 등을 통해 뉴에이지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미국의 마릴린 피거슨(Marilyn Ferguson)에 의해서이다. 「두뇌와 정신」(Brain and Mind Bulletin)이라는 잡지의 편집인인 그녀는 1973년에 출판된 「두뇌 혁명」(The Brain Revolution)을 통해 기존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잃어버린 정신세계를 발견하도록 촉구하여 뉴에이지 운동의 사상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에 출판한 「물병자리 공모」(Aquarian Conspiracy)란 책을 통해 비로소 전세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으며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새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뉴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을 하였다.

뉴에이지 운동의 심볼들



" 화개장터 "

전북 진안에서 발원한 섬진강이 하동군과 구례군이 만나는 화개면에 이르면서 강폭이 넓어져 하동의 서쪽 경계를 이룬다. 화개에 이른 섬진강은 하동 농림을 거쳐 남쪽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물길을 '하동 포구 팔십리'라 일컫는다.

남원에서 구례를 거쳐 가는 길이 있고, 진주 하동을 거쳐 두루두루 40리, 돌아돌아 40리, 경상과 전라를 잇는 은빛 섬진강을 따라 저항없이 흘러 가다 보면 닿는 곳 "화개 장터",

주위에는 볼거리 먹거리들이 허드레 하다, 화개에서 섬진강을 따라 남쪽으로 달려 가다 만나는 '악양'은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평사리 상평마을이 있고, 화개에서 지리산 쪽으로 나 있는 쌍계 벚꽃 길을 거슬러 오르면 신라 때 김대렴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우리나라 녹차의 시배지가 있다. 이 품종을 개량한 '작설차'의 원산지다.

주위의 먹거리로는 섬진강에서 잡아 올린 은어회가 있는데,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수박맛 같다. '은어회'는 접시당 3만원, 그리고 그 유명한 섬진강 제철곡 5천원, 제철회 3만원 등이 있고, 하동읍에서 화개 방면으로 가던 중, 섬진강 횡집이 있는데 참깨, 찹쌀가루, 부추 등을 넣고 끓인 '참깨 가루장국'은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난다.

남원을 넘어오는 길 지리산 온천수는 겨울 여행의 백미요, 전북, 전남, 경남, 3도가 머리를 맞댄 남원은 춘향전, 흥부전을 낳은 문학의 고장이기도 하다.

대구구마고속도로-진주-순천-목포로 이어지는 2번 국도와 구례에서 남해로 이어지는 19번 국도가 하동읍을 낀다, 구례 민박집에서는 가는 길에 먹으라고 '콩누룽지'도 싸준다, 도회지에도 그런 인정이 있었으면.....



<수제비>

$$= \text{주재 료} =$$

밀가루. 다시별치. 다시마. 양파. 무우. 감자. 호박. 당근. 계란.
바지락이나 북어포. 넙콩가루. 대파. 마늘. 조선간장. 소금

$$= \text{각 } \pi \text{ 는 } \frac{1}{2} =$$

1. 먼저 옥수를 끓여 놓는다(다시열치. 다시마. 양파. 무우).
 2.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주무르며 말랑거리게 한다(밀가루, 날콩가루, 계란, 소금약간). 이때 식용유 한 방울 떨어 뜨려 반죽하면 끈기와 쫄득거림이 더 좋아진다. 완성된 반죽은 30분 정도 놓아둔다.
 3. 야채를 둥글 납작하게 썰어 놓는다(호박, 당근, 양파).
 4. 끓여 놓은 옥수에 바지락이나 복어포를 넣고 바지락이 벌어질 때까지 끓인 후 바지락을 3의 재료를 넣고, 끓인 다음 2의 반죽을 먹기 좋은 크기로 떼어 넣는다.
 5. 4의 재료에 계란을 약간 풀고 대파, 소금, 조선 간장으로 간을 맞춰 당아내며 그 위에 건져 놓은 바지락을 보기 좋고 먹기 좋게 얹어 낸다.
- * 삼삼오오 모였을 때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부담 없는 요리다.



제공 :
고승희 집사



주와 함께라면

♩=16

주와 함께라면 가다 해도 좋 아
 주와 함께라면 병든 어도 좋 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시

참된 복요함 이 내 맘 에 가득하니 까
 참된 강건함 이 내 맘 에 가득하니 까
 약한 내 영혼 에 위로와 능력이 주시 네

때로는 밤 우혹하러 고 세상바람 휘몰아 쳐와 도
 때로는 밤 넘어드리 러 거친파도 휘몰아 쳐와 도
 가난해 도 병이 들어 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 도

나는 결코 잊을수없 어 자비 로운 주의 음성 을
 나는 결코 놓을수없 어 파사 로운 주의 손길 을
 나는 결코 떠날수없 어 아름

다 온 주의 나라 를 주의 나 라 를



찬양으로 드리는 마음

홍성아 집사

찬양은 곡이 있는 기도
 기별 때나 슬픔 때
 마음껏 부르라고 주신
 귀한 주님의 선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에 대한 사랑
 아름다운 기도를 오순절에 가득 실어
 하늘나라로 올려 보냅니다.

행여나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모르실까 봐
 혹시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나 않을까
 있는 힘을 다해 드리는 찬양
 주님, 받으옵소서.

어쨌든 그리도 아름다운지
 세상에 어떠한 보석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워
 구속받은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어느 유명한 성악가의
 노래 솜씨보다는 못하지만
 이 작은 입으로 드리는 찬양은
 너무나 거룩해
 나의 순종과 경외함의 열매이기에
 천사라도 부러워하겠지요.

삼행시

=> 감자탕 <==

감 : 감자마을에 허준 감자가 살았다,
 자 : 자신있고 심성착한 허준 감자가 말했다,
 탕 : 탕약을 드셔야 합니다,

*** 뽀뽀 ***

멧 : 멧돼지야!
 돼 : 돼지가 너보고 뽀뽀하데!
 지 : 지는?

◆ 인터넷 메일 사용하기

E-mail(Electronic mail)또는 전자우편이라고도 한다.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인터넷 메일을 이용하면 전 세계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일반 우편과는 다르게 단시간에 송,수신이 이루어지므로 매우 편리하다.

메일 주소

인터넷으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주소를 말한다.

인터넷 메일 주소는 사용자가 속해있는 기관에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또는 무료로 인터넷 메일 주소로 만들어주는 웹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인터넷 메일 주소 형식과 사용 예는 다음과 같다. 이때 @는 at(~에 있는)의미이며, Domain Name에는 자신의 ID를 등록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또는 웹사이트의 것을 적는다.

인터넷에서 우체국 역할을 하는 컴퓨터로 인터넷 메일 주소를 관리하는 기관 ISP 웹사이트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1) 자신과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의 인터넷 메일 주소를 적어보자,
- 2) 메일 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화면 중앙에 있는 입력상자에 신청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들어가기] 단추를 클릭해 보자,
- 3) 로그인 된 화면의 위쪽에 나열된 메뉴 목록 중 메일을 클릭하여 메일 관련 화면으로 이동해 보자,

잠깐?

희망 ID : 신청한 ID는 인터넷 메일 주소에 사용되므로 영문 소문자로 너무 길지 않게 짓도록 한다.

비밀번호 : 은행 계좌 비밀번호와 같이 중요한 곳에 사용되는 숫자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웃음 코너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하신 후 하늘로 가신지 어언 20여 년이 흘렀다.

하루는 천국의 문 앞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아주 눈에 익은 노인이 한 사람 걸어서 올라오고 있었다. '아니... 저 분은 혹시...'

예수님은 그 노인을 붙들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저.. 혹시 노인은 세상에 계실 때에 목수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랬지요.."

"그럼 혹시 당신에게 어머니를 통하지 않은 아들이 하나있지 않았는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지요?"

"그 아들은 본래 사람이 아니었지요?"

"맞아요."

예수님은 감격이 복받쳐 올랐다.

"그리고, 그 아들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그렇습니다."

"흑흑흑... 아버지 접니다. 제가 바로 세상에 살 때에 당신 아들이었습니다."

노인은 감격에 겨워서 물어 보았다

.아니, 그럼 네가 정말로 피노키오란 말 이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 김옥화 성도님 - 올 해에 들어서 등록교인 마지막에 해당되는 성도입니다. 남편과 슬하에 두 자녀(딸 김보은, 아들 김찬서)가 있으며, 열심히 일하시는 성격의 스타일인 듯 합니다. 누구보다도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김자매님은 우리교회의 앞찬 일꾼이 될 것 같습니다.

현덕규집사님의 전도로 출석하게 되었는데, 두 분의 사이는 매우 가까고 다정하다 할 수 있습니다.

2001년에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기대가 되는 군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김자매님 화이팅!!!!



성지순례

1. 가시떨기



시내산 밑에서 AD 3세기 중엽부터 수도사들이 산기슭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는 성 가타리나 수도원(그리스정교회소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시떨기나무.

(하나님께서 불꽃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네가 서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음) (출 3:5)

2. 시내산



시내산은 해발 2285m로서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은 곳으로 불 붙는 떨기나무 사이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호렙산.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 이요 하나님의 친히 쓰신 것 이러라"(출31:18)

3. 사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해저 400m).

에스겔이 예루살렘 근처의 강에서부터 사해의 소금물이 단물이 되는 환상을 봄(겔47:1~12)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 때 롯의 아내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말씀이 연상케 함

4. 쿨란동굴



주전2세기에 유대인사이에 내분 이 일어나 정치적, 종교적 파당 사이에 분란이 생긴다. 이런 종파 들 사이에 쿨란이란 장소에 에센 파가 자리 잡는다. 이들은 두루 마리 성경을 필사본을 하는일을 했는데 1947년 이곳 쿨란동굴 에서 사해사본 (동물 가죽인 양피 지로 만들, 에스더를 제외한 구약 성경)이 발견 됨. 이 사해사본은 현재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 중 이다.



(구약 이사야서 사해사본)

♣ 성지순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언제 : 2001년 4월경(약 10일간)
- 요금 : 1,200,000원~1,500,000원
- 신청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 순례국가 : 이집트, 이스라엘
- 지혜 : 참가자가 많을수록 경비를 줄일 수 있음.
- 문의 : 교회

기아의 현장

세계 극빈자가 집중되어 있는 10/40의 창

10/40의 창 지역에 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GNP 500불 미만)의 82%가 살고 있으며, 이 지역 사람들 중 97%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였고, 전통적인 선교사 중 1%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매순간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그래서 매순간 우리는 한 사람씩 살려냅니다.

◆ 굶주림이란?

· - 육체적 기아 -

* 기근 (Famine)

갑작스런 가뭄이나 홍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과 내전 등으로 생기는 굶주림을 말한다. 일시에 많은 피해자를 속출해 많이 알려져지만 전체 굶주림의 10%도 차지하지 못한다.

* 만성적인 영양부족 (Chronic Hunger)

신체에 필요한 열량과 단백질 부족이 장기간 쌓이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체중이 줄고 무기력해지며 상상력과 창조력이 떨어진다. 굶주린 사람들의 80%가 여기에 해당한다.

* 영양실조 (Malnutrition)

음식물을 섭취하지만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이 적절히 배합되지 못해 장애를 야기 시키는 상태
영양 부족이 음식물의 양적 결핍 상태라면, 영양실조는 질적인 결핍 상태

* 흡수장애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하지만 보건/건강 상태가 열악하여 인체 내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설하거나 또는 영양분의 40% 이상을 기생충이 섭취하여 각종 신체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

* 계절적 영양실조

추수 전까지 비축해둔 식량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것으로 여러 나라에서 해마다 발생한다.



기아는 육체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정신,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발견된다.

인간이 정신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으면 삶 가운데 기쁨이나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하여 의지적으로 버텨 나가지만 개인의 힘으로 가난과 굶주림을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환경을 원망하고 마침내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인 절망감과 무력감은 생산성을 떨어뜨려 가난과 굶주림의 상태를 더욱 악화 시킨다.

정신적인 기아는 육체적인 기아처럼 가난한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진국에서 빈부 격차로 상대적 빈곤감이 작용, 정신적인 기아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난과 실직 등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떠도는 노숙자들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있더라도 내적인 공허감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는 소망이 없이 무기력한 나날을 보낸다. 또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사회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지고 반면에 자신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점점 줄어들어 절망주의적인 세계관에 휩싸이기 쉽다.

사람이 일단 정신적인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되면 육체적으로 아무리 필요조건들이 충족된다고 해도 정신적인 기아에서 쉽게 빠져 나오기는 어렵다.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들이 수많은 인도주의적 해외 원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늦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신적인 기아이다. 이들의 육체적인 필요와 함께 정신적인 기아를 치유하고 충족시켜 주는 공생적인 사역(Symbiotic Ministry)이 무엇보다 이 지구상의 가난과 굶주림을 완전히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지구상에 굶주림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전 세계 어린이 사망 원인의 절반 이상이 굶주림 때문이다. 14세기 유럽과 아시아를 강타했던 흑사병 이래 이토록 많은 사망자를 내는 질병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죽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굶주림은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인한 각종 질병, 실명, 정신장애 등을 낳고, 여성, 가족,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 이 시대의 굶주린 자들은 누구일까요?

집이 없이 떠도는 이들이나 절대 빈곤자들. 이들은 늘 절망과 파괴의 그늘에서 살아간다. 이들에게 단 한 번의 사고-기근, 홍수, 지진, 전쟁, 전염병 등-라도 닥치게 되면 절대적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약 10억의 사람들이 단 하루도 살기 힘든 상황에서 연명하고 있다.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들, 노인들과 여성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가정에서 음식은 종종 남성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돌아가고 여성은 그 다음이기 마련이다.

@ 지금 개발도상국에서는?

굶주림이나 그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난다. 개발도상국이란 무엇인가? UN에서는 국민들이 1인당 1년간 9000불 미만, 하루에 25불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나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보다 훨씬 낮은 수입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 중국에서는 1년에 620불(하루에 1.7불),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1년 400불 미만(하루 1불)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매년 27,000불 이상, 하루 75불의 수입으로 지낸다.

북한에서 오는 편지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망찬 설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의 장래는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힘을 써야만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연변 땅에도 탈북한 청소년들이 구걸해서 배를 채우고 나면 다음은 담배를 피우고 노랑머리로 염색하고, 구걸하던 아이는 도둑으로 변해 가고있습니다. 먹을 것만 주고 돌보지 않은 채 방치해두면 곧 바로 약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통일이 되면 머지 않아 이들은 남쪽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와 이웃으로 함께 살아 갈 것입니다.

이들도 이 민족의 꿈나무들인데 이국 땅에서 별 별 못된 것만 보고 배우니 참으로 큰 걱정입니다.

50년 전 전쟁을 했던 당사자들이 전쟁 1세대라면 전쟁의 상처를 봉합하려고 가진 애를 쓰는 우리의 세대는 전쟁 2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된 이후에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금의 청소년들은 전쟁 3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장래는 점쳐질 것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과는 총칼이 아닌 또 다른 이데올로기의 싸움, 더 큰 범죄와 영적 싸움으로 전쟁1세대가 남긴 악의 유산이 전쟁3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의 사선을 넘어 왔기에 겁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모릅니다.

범죄도 대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들을 만나 옳은 길로 양육 받은 청소년들은

예수를 위해 죽기로 결심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육 받은 청소년들이 지금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 전도하는 복음의 전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순교를 결심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장렬하게 충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이웃을 유산으로 남겨 줄 것인가? 아니면 선한 형제를 만나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은 통일 이전에 북한을 얼마나 복음화 시킬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복음화는 이들 탈북자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그 적기입니다.

주께서 주신 기회라고 봅니다.

중국에서 유리 방황하는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넘어오게 하는 것은 인도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나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등 도움이 못됩니다.

오히려 남북당국의 갈등을 조장하게 하고 북한에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며 한국에는 짐을 지워 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랑 선교회(<http://yerang.net>)에서는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합니다.

처음 94년부터 96년까지는 조선족 (중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전도 훈련을 시켜 사명자로 만든 다음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케 하여 쌀과 의류를 보내고 그 속에는 성경책도 보내서 전도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족들을 통해서 신앙고백을 하고 예수를 영접한 북한의 주민들이 수천이 되었을 때 북한에서는 식량난으로 주민들이 대거 탈북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가 97년도였습니다.

. 이것은 주께서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고 우리는 탈북자들에게 예수를 영접케 하고 신앙훈련을 시켜 복음을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하여 북한에 지하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상당한 진전을 보아왔고 또 순교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전문성을 가지고 철저한 통제와 보안을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 1 단계는

신실한 조선족을 기독교인으로 양육하여 전도인으로 배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도인으로 택함 받음과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본받는 생활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제 2 단계는

훈련받은 조선족 전도인들로 하여금 처소교회를 운영하게 합니다. 처소가 부흥되면 편의상 삼자교회에 가입시켜 중국 공산당 중무국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피해 가기도 합니다.

제 3 단계는

처소교회에 스며드는 탈북자들 중 신실하고 활동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선발해서 일정기간 동안 처소의 전도인 책임 하에 양육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각종 생필품을 지급하여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제 4 단계는

3단계를 거친 탈북자들을 우리는 믿음의 형제로 인정하고 중국 현지에 있는 베이스캠프(선교 전략 기지)로 오게 해서 보수 정통의 신학과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기간은 1회 2개월 정도로 합니다. 1일 교육 시간은 10시간 정도이며, 나머지 시간에는 기도와 찬송, 그리고 한국에 대한 것들도 가르칩니다.

제 5 단계는

4단계 교육을 3회 이상 받은 사람을 선발하여 자금과 모든 것을 지원을 해서 북한에 지하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2천년 5월말까지 우리

예랑 선교회에서는 이미 수십 개의 지하교회를 북한에 세웠습니다.

제 6 단계는

순교의 현장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순교할 기회가 있으면 피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이 일도 이미 이루어졌고 또 계속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제 7 단계는

이미 조직되어 가동 중에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 전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할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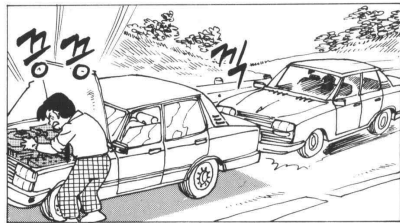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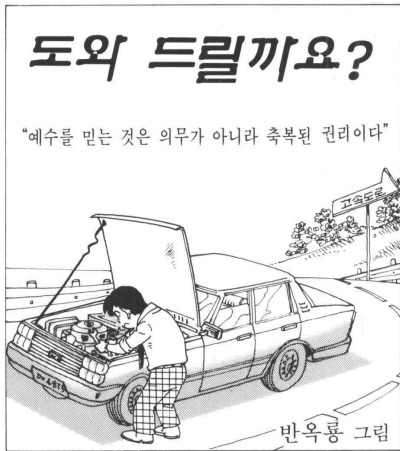
북한의 복음화와 우리 선교사들과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전사들의 생명은 한국에 있는 동역자 회원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해주시시오.



나뭇잎으로 위장한 토굴입구 (A 지구)

탈북자들을 이 토굴 속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키워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면 죽음을 각오하는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집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 12:1)

사랑하는 딸, 예지에게

화단에 피어난 꽃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런 너를 마음에 담아 본다.
하늘에서 내린 단비를 축축이 맞고 난 초목을 보면서
너의 장래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딸을 위해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을 주는 것, 아니면 인생을 주는 것
아빠를 바라보는 너의 눈동자를 대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빠가 되련다.

너의 삶에 인생이 꽃피고
아빠를 이야기 할 때
기억 속에 자랑스럽게 떠오르는
아빠가 되려고 기도한다.

나의 사랑하는 딸, 예지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며
소금과 빛으로 살자.

세상이 혹 너를 속인다 하여도
정직을 노여워하지 말고
부와 행복을 가질 수 있다 하여도
속임과 거짓은 용기 있게 버리자.

오늘에 감사하며
내일은 기도하자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흠뻑 살자.

‘사랑스런 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아빠가’



내년부터 상거래에서 평, 인치, 자, 근, 돈 등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량 단위의 사용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비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을 통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용 근절 시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비법정 단위를 사용한 계량기를 만든 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홍보기간을 거친 뒤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 법정 계량단위

법정계량단위란 일상생활 및 산업과학교육 등 공공분야에서 길이, 무게, 넓이, 부피 등을 나타내는데 있어 통일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단위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단위이다.

전에는 대부분 미터단위계였으나 1982년 4월 7일 계량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제법정계량기구(OIML)가 권고하는 국제단위계(SI)를 채택하게 되었다.

국제단위계(SI: The interna-

tional System of Unites)란 흔히 미터법이라고 부르던 단위계가 현대화된 측정표준의 현대적 체계로서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상거래 등 현대사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 표준이 되는 기본단위를 말한다.

현재 법정계량 단위는 m(길이), kg(질량), m²(넓이), K, °C(이상온도), l, m³(이상부피), A(전류), m/s(속력, 속도) 등이다.

이 단위의 배량(倍量) 및 분량(分量)을 표시하기 위해 킬로(접두어: 기호 k), 밀리(접두어: 기호 m) 등의 10ⁿ배를 나타내는 접두어 등을 사용한다.

10대 자녀■ 둔 부모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10가지

1. 자녀는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자녀에게 배우라. 자녀에게서 교훈을 얻는 부모가 참된 지혜자다.
2.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라.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걸기 보다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아라.
3. 십대들은 부모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배운다. 가르침과 삶을 일치시키되 먼저 본을 보여라.
4. 십대들의 미숙함과 연약성을 흡수하는 스펀지가 되어라. 나도 그들처럼 미성숙할 때가 있었다.
5.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조작하지 말라. 본래의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들에게는 그들대로의 시간표가 있다.
6. 기대를 조절하라. 잘못된 기대가 관계를 파괴시키고 실망과 좌절을 안겨다 준다. 눈높이 기대로 나아가라.
7. 환경 조성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라.
8. 부모에게도 연약함이 있음을 알려라. 십대만이 아니라 인생의 중년기(사춘기)를 보내는 부모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알려 동맹군이 되어라.
9. 독점 찬스를 놓치지 말라. 그들이 실수했을 때가 바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때이다. 틈새를 잘 공략해라.
10. 낙타 무릎의 부모가 되어라. 기도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런 부부는 꼭 실패

침묵부부 - 부부 사이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금이 가게 한다.

통명부부 -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통명스러움이다. 짜증이 결국은 부부관계를 무너뜨린다.

돈돈부부 - 무엇이든지 돈과 연결시키는 부부는 곤란하다. 결혼생활의 행복에 있어서 돈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달달부부 -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 각자의 영역과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꼬치꼬치 캐묻고 달달 볶지 말라.

형담부부 - 부부 서로간에도 상스런 말을 해선 안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의 흉을 보여서는 더욱 안된다.

외도부부 - 바람 피우는 것만이 외도는 아니다. 가정을 지키지 않고 밖으로 나도는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선 안된다.

따로부부 - 상대방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달달 볶는 것도 문제지만 무관심 무간섭의 부부관계도 그에 못지 않게 위험하다,

12월의 새익구

1. **김옥화** - 당진읍 읍내리
마리아여선교회 화평구역
전도자 : 현덕규집사
2. **오복례** - 당진읍 읍내리
한나여선교회 믿음구역
전도자 : 이옥희집사

교인동정

1. **출산** - 최은주집사님께서 둘째아
이를 순산했습니다.
* 김은희(딸)
2. **입원** - 장은하권찰님께서 교통사
고로 푸른병원 308호에 입원중입니
다.
3. **이사** - 김보경권찰님 가정.
* 고대면 보람APT 101동 306호

교회동정

1. 교회에서는 충남 성환에 있는
장애인교회를 다녀왔습니다.
* 무료 이미용 * 목욕
2. 교회에서는 새 차량(기아, 프
레지오 3.0)을 구입했습니다.
3. 교회 김장을 하였고, 어려운
교회(2곳)를 도왔습니다.
3. 뇌경색으로 치료비없이 입원중에
계신 사모님(넘치는교회 김세준목
사)의 치료비를 모금하여 전달하
였습니다(W560,000원).

◎ 1월중 교회행사

1. 신년축복 안수기도회 - 1월 1일 새벽 1시
2. 구역장모임 - 1월 4일 오전 11시
3. 신년축복예배 - 1월 7일 오전 11시
4. 직분임명식 - 1월 7일 오전 11시
5. 동계수련회 - 1월 8~9일(1박2일)
6. 제직수련회 - 1월 15일(월) 오전 10시
6. 공동회의 - 1월 14일 오전예배 마친 후
7. 헌아식 - 1월 21일 오전 11시

예배 및 각종 모임 안내

	대 상	요일	모 임	시 간	비 고
예 배	장 년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예정
			2부 예배	오전 11시	
		수요	저녁 예배	오후 7:00(11월~4월) 오후 8:00(5월~10월)	
			아침 예배	오전 11시	
		금요	구역 예배	각 가정에서	
	주교	주일	오전 예배	오전 9시	
		"	오후 예배	오후 3시	
	학생	토요	성경공부	오후 5시	문화활동 있음
		주일	정기 예배	오후 5시	
	청년	화요	정기 예배	오후 7시	
기도	장 년	금요	철야기도회	밤 9시	
		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	장 년	목요	초신자양육	오전 11시	2일
		목요	새신자훈련	오후 1시	1일
		화요	평신도훈련	오전 11시	
				오후 8시	
		화요	구역장공과	오전 6시	
		화요	제자훈련(초급)	오후 9시	
		화요	제자훈련(중급)	오전 9:30	
			제자훈련(고급)	오전 9:30	
		주중	일대일양육	정한시간	가정, 직장
		목요	영적성장세미나	오전 11시	격월
모임	성 가	주일	연 습	오전 10시	오후 12:30
		토요	연 습	오후 5시	
활 동	을 동 선 교 단	수요	1기(레마)	오전 10시	연습
			2기(살롬)	오후 1시	
		토요	3기(셀라)	오후 5시	
	찬양선교단		연 습	매주 화,목	오후 7시
	컴 퓨 터	월요	컴퓨터교육 및 작업	오후 5시	컴퓨터팀
		화~토	컴퓨터교육	오전 10시 ~오후 9시	PC방 운영 교육생

1	2			3		4	
			5				
6		7			8		9
	14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예수님의 12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세베대의 아들
3. 빌립의 친구(요 1장)
5. 팔레스틴 지역을 가로질러 흐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강
6.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이삭의 이복 형.
8. 웅졸하고 속이 좁은 사람을 일컬어 이같은 사람이라 함.
10.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음(고전 10:10)
11. 새신자를 데리고 오는 행위나 길을 안내하는 행위.
13. 제5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땅에서 이 복을 누림(출 20:12)
14. 꾸지람, 훈계의 이것은 곧 생명의 길이라(잠 6:23).
15. 여호와와 교화가 미칠 애굽 성읍의 이름(사 19:18).
19.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기록된 성경책.
21. 탕자에서 돌아 온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분의 무엇이 있었다고 말한다.
22.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 ‘장로’라 불리우기도 함.

<세로 열쇠>

2.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향하도록 조서를 내린 바사 왕(대하 36:22).
3. 다윗의 밧세바 간음을 책망한 선지자(삼하 12장).
4.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쳐져 성별된 자.
5. 브두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선지자(을 1:1).
6.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일컫는 명칭.
7. 신약성경의 사복음서 중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8. 믿음, OO,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9.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것.
10. 사단은 우리들의 OO임.
12. 유다의 머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증거로 보이고 죽음을 면한 물건 중 하나(창 38:25).
13. 별 계급을 단 군인을 일컫는 말.
16.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죄수의 목을 칼로 베었다. 아주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17. 「하나님은 기쁨을 주심」이란 뜻을 가진 야곱의 첩인 실바에게서 낳은 갖의 자손, 부스의 아들(대상 5:14).
18. 바벨탑 사건 이전, 온 땅의 구음은 하나였는데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게 되자 하나님은 이것을 혼잡케 하셨음(창 11:9).
19. 복음을 전함.
20.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맹세한 것(민 30:2이하).

♣ 경답을 작성하여 1월 21일까지 제출하면 추첨하여 시상함

▶ 교회를 찾아오시는 길 ◀

▲ 문서발간위원회 ▲

위원장 : 김미진 집사
 서 기 : 이종희 성도
 회 계 : 구옥순 성도
 위 원 : 박순남 집사
 손현숙 권찰
 윤희자 전도사
 편 집 : 한승원 목사
 타 자 : 김진숙 선생

